

“왕비호와 스탠드업 코미디로 답답한 속 뚫어요”

왕비호 탄생 10주년 맞은 윤행빈

자신의 소극장서 기념 공연 준비

후배 양성·격투기 은퇴전 등 계획

KBS 2TV '개그콘서트'의 전성기와 함께한 캐릭터 '왕비호'가 탄생한 지 올해로 10년이다.

부담스러울 정도로 두꺼운 아이리인에 큰 하트가 그려진 티셔츠, 핫팬츠에 망사 스타킹, 그리고 '모두까기' 독설. 왕비호는 모두에게 한 번쯤 다시 보고 싶은 존재다.

왕비호를 연기한 개그맨 윤행빈(38) 역시 “지금의 제가 있게 해준 정말 고마운 캐릭터”라며 “지금도 종종 그리워서 소극장 공연 때 의상을 챙겨간다”고 웃었다.

최근 서울 광화문에서 만난 윤행빈은 알려진 대로 '에너지자이저'였다. 운소그룹(윤행빈 소극장) 운영과 후배 양성, 새로운 프로젝트 계획, 격투기 대회 준비까지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먼저 오랜만에 왕비호에 대한 추억부터 곱씹어봤다. 그는 왕비호를 최근 유행하는 스탠드업 코미디에 최적화된 캐릭터라고 했다.

“요새처럼 답답한 일이 많은 시대, 성역 없이 질러주는 게 스탠드업 코미디의 가장 큰 특징이자 매력임을 고려한다면 왕비호만한 캐릭터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왕비호가 나왔다면 수위를 훨씬 높여야하겠지만, 탄생 당시에는 각종 제약이 더 많았기에 못 나올 뻔했죠. 당시에 들은 말은 '너 이거 하면 방송 못 할 수도 있어'였거든요.”

그는 국내 스탠드업 코미디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멋진 장르라고 평가받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개그맨들이 망가지고, 웃겨지길 바라는 마음이 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멋진 것도 중요하지만 망가지고, 자신을 낫출 줄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누구보다 왕비호를 사랑하는 그는 자신이 운영 중인 윤행빈 소극장에서 왕비호 10주년 기념 공연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왕비호 밴드”로 불리는 ‘오버액션 밴드’와 함께 사이타처럼 속 시원한 내용으로 이르면 8월께 선보이겠습니다.”

그는 ‘개그콘서트’ 활동 이후 격투기 무대에 데뷔, 열심히 운동한 바람에 요새는 왕비호 의상이 짝 낀다는 ‘웃픈’ 뒷이야기를 전하기도 했다.

인터뷰 초반 웃음이 가득했던 윤행빈은 친정 ‘개그콘서트’의 침체를 이야기할 때는 진지한 모습으로 변했다. 그리고 왕비호답게 독설도 아끼지 않았다.



“개콘’이 부진한 건 공개 코미디가 수명을 다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활할 방법이 간단해요. 그런데 그 길을 어렵게 돌아가고 있죠. 정답은 ‘검증’이에요. 과거 ‘개콘’은 관객들의 웃음이 터지는 포인트를 수백 번 검증한 대학로 공연을 토대로 방송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검증을 한 차례도 안 해요. 마박이, 고음블가, 화상고 같은 캐릭터를 책상에서만 논의했다면 땀 터질 줄 알았을 것 같아요. 신인 개그맨을 뽑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개그 무대를 바닥부터 오래 한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잘생기고 예쁘고 끼 좀 있어 보이는 ‘스타’를 뽑으니 현장이 재미가 없어요.”

그는 그러면서 “개콘’은 무조건 잘돼야 한다. 만약 ‘개콘’이 없어진다면 개그맨이라는 카테고리 전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며 “제가 소극장을 운영하며 후배 50명을 양성 중인 것도 ‘진짜 웃기는 개그맨’의 명맥을 잇고 싶기 때문”이라고 했다.

“저희 때만 해도 제작진, 선후배, 신인 간 고리가 있어서 어딜 가든 개그를 배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5년간 그게 딱 끊겼죠. 그러다 보니 대학로에 가도 신인끼리만 모여서 공연을 하니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도 모르고 해요. 요새 잘 나가는 양세형, 양세찬도 트레이닝을 받은 친구들이거든요. 트레이닝을 거치지 않은 사람과 거친 사람은 무대에서 보면 확 차이가 나요. 트레이닝 받은 신인이 무대에 올라야 바로 신선한 코너도 할 수 있어요.”

그는 이러한 이유로 힘들어도 직접 대학로 거리에 나가 홍보까지 하며 소극장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한 번은 배우 최민식이 거리에 나선 윤행빈을 여러 차례 보고 “너 인정”이라고 했다고도 한다. 윤행빈은 “제가 그제 창피했으면 다시 거리에 못 섰을 텐데 전투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 요즘도 계속 나간다. 최민식 선배님이 공연에 한 번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은 안 오셨다”고 웃었다.

다른 코미디 그룹 웅알스와 손잡고, 소극장 내에서도 다양한 이벤트를 하는 등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하는 윤행빈은 해외 진출도 꿈꾸고 있었다.

“웃음이 나오는 원리 자체는 세계적으로 비슷하다고 봐요. 아귀들이 뭘 알아서 웃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웃는 거예요. 보통 ‘코미디 한류’를 말하면 ‘말이 안 통하지 않느냐’고들 하는데, 그럼 그 말과 문화를 배우면 되죠. 가요 한류의 시조라고 볼 수 있는 보아나 동방신기를 보면 완벽하게 현지화를 했잖아요. 코미디도 그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나라 개그맨들만이 가진 기술로 경쟁할 수 있거든요.”

윤행빈은 개그우먼 정경미의 남편이기도 하다. 중형무선 활동하는 남편을 보고 아내는 걱정될 법도 하다.

이에 대해 윤행빈은 “솔직히 얘기하면 이젠 아내가 해탈한 것 같다. ‘하지 말란다고 내가 안 하겠느냐’는 식이다. 그래도 내심 응원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올해 격투기 무대에서 은퇴전을 치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5살 아들이 놀라면 어떻게 하느냐는 물음에 그는 “맞지 않고 때릴 거니까 괜찮다”고 자신했다.

“왕비호 탄생 10주년 올해가 제게도, 운소그룹에도 굉장히 중요한 해가 될 것 같아요. 많은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고, 그걸 성공해야 해요. 새로운 것이라는 생각만 들면 무조건 한다는 정신으로, 앞으로도 절박하게 하려고요.”

/연합뉴스



2018러시아월드컵을 앞두고 28일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린 축구국가대표팀 대 한국-온두라스 친선경기에서 붉은 악마들이 열성적으로 응원하고 있다.

‘오~필승 코리아’ 이을 응원가는?

‘We, The Reds!’ 음반 등 응원곡 잇따라 출시 월 스미스, FIFA 공식 주제가 ‘리브 잇 업’ 불러

지구촌 최대 스포츠 행사인 2018 러시아 월드컵을 앞두고 가요계에 응원곡이 쏟아지고 있다.

‘오! 필승 코리아’를 들으면 2002년 한일월드컵의 환희가 되살아나듯이 올해는 어떤 노래가 축구 팬들을 사로잡을지 관심을 끈다.

2일 가요계에 따르면 국제축구연맹(FIFA)은 최근 소니뮤직과 손잡고 공식 주제가 ‘리브 잇 업’(Live It Up)을 발표했다.

이 노래에는 미국 인기배우 겸 래퍼 월 스미스와 라틴 그래미상을 받은 가수 니키 켈, 코소보 출신 수퍼루키 에라 이스트레피가 참여했다.

월 스미스는 “세계인들은 이번 월드컵에서 마법 같은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폐막식에서 전 세계를 춤추게 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에라 이스트레피는 “놀랍고도 흥미진진한 경험이었다”고 했고, 니키 켈은 “미래에 손자들에게 ‘내가 월드컵 주제를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어서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한국 축구대표팀 공식 서포터스인 붉은악마는 월드컵 공식 음반 ‘We, The Reds!’를 공개했다. ‘We, the Reds!’는 한국 대표팀의 공식 응원 슬로건이다. 노래 제작은 연예기획사 톨림컬처원이 맡았다.

타이틀곡은 걸그룹 구구단의 김세정과 보이그룹 빅스의 레오가 부른 ‘우리는 하나’다. 함께한다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메시지를 김세정의 청아한 고음과 레오의 따뜻한 목소리로 표현했다.

앨범에는 이 밖에도 밴드 마르멜로의 자작곡 ‘승리의 순간’, 밴드 락깃걸의 ‘우리는 대한민국’, 래퍼 넥살-딥플로우-우탄-오디의 ‘티키타카- 2018 월드컵 버전’ 등이 담겼다. ‘티키타카’는 합작 레이블 VMC의 컴필레이션 앨범 ‘비스티 보이즈’의 타이틀곡을 개사한 노래다.

2006년 독일월드컵 때는 버즈의 ‘레즈 투게더’(Reds go together)와 싸이의 ‘위 아 더 원’(We are the one)이,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월드컵 때는 록그룹 트랜스픽션의 ‘승리의 함성’ 등이 널리 불렸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 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50 전선에 웬수들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구례군수 선거 후보자 토론회	25 닥터 365 30 나도 엄마야
[9]	30 KBS 뉴스	00 파도야 파도야 40 여유 만만	55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토론회 서울교육감	10 좋은 아침
[10]	00 2018 지방선거 광주총국 법정토론 (나주시장 후보)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우리가 만난 기적 (재)	35 익스트림 서프라이즈 스페셜 55 12 MBC 뉴스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15 검법남녀 (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워워뽕뽕 로그인 코리아(재)
[1]	00 네트워크기획 문화산책 50 2018 지방선거 법정토론 (광역, 교육감후보 1차)	00 다큐멘터리 3일 (재)		55 닥터 365
[2]	00 2018 지방선거 광주총국 법정토론 (보성군수 후보)	00 KBS 뉴스타임 10 영화가 좋다 (재)	35 차종우돌 만국 유랑기	00 뉴스브리핑
[3]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30 사이닝스타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재) 55 살림하는 남자들(재)	00 뽀뽀모두야 놀자 30 꾸러기 식사교실	00 토크콘서트 화통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뉴스콘서트	00 SBS 오뉴스 45 KBC저녁 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0 기름진 멜로 모아보기
[7]	00 KBS 뉴스 7 35 우리말 겨루기	50 인형의 집	15 전국시대 스페셜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10 생방송 TV블로그 품지락
[8]	25 내일도 맑음	30 FIFA 월드컵러시아 2018 특집 볼쇼 이영표 55 제보자들	55 차종우돌 만국 유랑기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 9			
[10]	00 광주광역시교육감 최영태후보 방송연설 10 호국보훈의 달 기획 가요무대	00 너도 인간이니?	00 검법남녀	00 기름진 멜로
[11]	05 KBS 뉴스 15 2018 지방선거 법정토론 (서구갑 후보)	10 안녕하세요	10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토론회 인천시장	10 KBC특선 오페라 실황공연 아이다
[12]	55 생활의 발견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30 나이트 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09:4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스페셜	16: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아시아인속스포츠 소들의 대격돌! 태극 남부 소싸움〉	10:30 최고의 요리비결 〈부추 손두부탕과 돼지목살 간장구이〉	16:30 방귀대장 뽕뽕이(재)
06:00 한국기행(재)	11:20 세계테마기행(재)	16:45 덩동덩 유치원1~2(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17:15 로이와 함께 하는 소방안전 이야기
07:00 플라워링 하트	12:10 극한직업 스페셜	17:30 마사와 곰
07:30 로보카 폴리	13:00 다큐 오늘	17:45 띠띠뽀 띠띠뽀
08:00 덩동덩 유치원1~2	13:10 글로벌 가족정착기 한국에 신다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4
08:30 허풍선이 과학쇼(재)	13:40 배워서 남줄람(재)	19:00 스페이더맨
08:45 방귀대장 뽕뽕이	14:30 똑딱맨	19:30 EBS 뉴스
09:00 몬카트	15:00 호기심 나라 오기도	19:5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09:15 정글에서 살아남기 〈화산섬의 비밀〉	15:15 파프리카	20:40 세계테마기행
09:30 우리는 비트르스	15:25 그림 그려줘 루이	21:30 한국기행
	15:45 부릉!부릉! 브루미즈	21:50 EBS 다큐프라임
	16:00 냉장고 나라 코코롱	22:45 메디컬 다큐-7요일
		23:55 배워서 남줄람(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p>36년생 근면과 검소 속에서 복이 피어나리라. 48년생 실재적 관계가 성립되기 전에는 자제함이 무방하다. 60년생 알면서도 모르는 척해야하는 스트레스가 상당하겠다. 72년생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리라. 84년생 여유와 기량이 절실하다. 행운의 숫자 : 61, 3</p> <p>37년생 예의주치하고 있어야 한다. 49년생 겸손함과 검소함 속에서 복이 피어나리라. 61년생 지속적으로 이끌어 가야만 한다. 73년생 균형 감각과 체계적인 준비가 절실하다. 85년생 생기를 띠면서 발전적인 국면으로 진입하는 경로이다. 행운의 숫자 : 57, 18</p> <p>38년생 좋은 일이 있는 과정에서 마도 많이 끼는 법이다. 50년생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 한다. 62년생 복이 들어오고 있다. 74년생 잠심변화를 모색해 보는 것도 괜찮다. 86년생 미처 생각지도 못하던 일이 발생하여 시간을 빼앗긴다. 행운의 숫자 : 77, 31</p> <p>39년생 파격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51년생 주변인의 평가 귀 기울이자. 63년생 곧 안정 될 것이니 열려라. 75년생 진분을 가장하여 사익을 도모하려는 이가 보인다. 87년생 절대로 놓쳐서는 아니 될 일이다. 행운의 숫자 : 67, 52</p> <p>40년생 마음은 있으나 현실 여건이 따라주지 못 한다. 52년생 변수는 없다. 64년생 머지않아 변화의 바람이 불 것이니 차분하게 기다려라. 76년생 현실 상황에 따르는 것이 도리이다. 88년생 합리성과 능률적인 면이 가장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1, 16</p> <p>41년생 타산지적으로 삼을 만하다. 53년생 사정을 고려한 다음에 결정하자. 65년생 의외의 인연이 활로를 열어 줄 것이다. 77년생 노력을 경주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89년생 두각을 나타내면서 상당한 진전을 보일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6, 62</p>	<p>42년생 눈앞의 이익 때문에 숨겨진 화를 간과할 수도 있다. 54년생 매우 혼란스러운 양태이다. 66년생 다들 다면 완성도가 높아지겠다. 78년생 사소한 것이라도 가볍게 넘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90년생 접근성과 순발력의 문제가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4, 13</p> <p>43년생 실효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용이하다. 55년생 너무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67년생 준비해 두었던 것을 시의 적절하게 쓰게 된다. 79년생 패기가 있다. 91년생 실행 방법이나 기교에까지 신경 쓰는 것이 용이하다. 행운의 숫자 : 95, 33</p> <p>44년생 쉽지 않은 일을 것이다. 56년생 여건과 부합되지 않는다. 68년생 전혀 예상치 못 했던 특수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80년생 실행되고 있는 바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다. 92년생 희망을 잃지 않아야 한다. 행운의 숫자 : 82, 66</p> <p>45년생 부러움을 한 몸에 사게 되리라. 57년생 임시방편적이어서는 아니 된다. 69년생 반드시 욕망을 가려야 한다. 81년생 충격적인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93년생 징후를 무시한다면 사후에 발생하는 현상을 수습하기가 힘들어질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8, 23</p> <p>46년생 다양한 기회를 갖되 선택은 신중하리라. 46년생 털어서 먼지 나오지 않는 이 없을 것이다. 58년생 활발한 움직임이 보인다. 70년생 세 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한다면 실수를 면한다. 82년생 수효가 늘어나면서 득도 되지만 어수선해진다. 행운의 숫자 : 13, 60</p> <p>47년생 정신 바짝 차려야 할 것이다. 47년생 원하는 것은 보이지 않고 엉뚱한 것만 눈에 띈다. 59년생 지나치게 맹신하다가 크게 잃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71년생 속도 집착하다 보면 불완전하게 끝맺는다. 83년생 영달이 따를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97, 02</p>
---	--